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강타한 이번 수해로 모두 230명이 실종·사망하고 12만명의 이재민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피해만도 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재해는 다분히 '인재(人災)'였다. 인재를 만든 것은 인제(仁濟)였다. 인제는 근시안적이지 않다. 지혜로운 이는 그 잘못을 안다. 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서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도적의 허물과 같다. (집사함경)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몸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수타니파타)

국왕이 만일 진정으로 교화하면 여덟가지의 큰 공포가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니 타국의 침범, 국내의 반역, 악귀와 질병, 국토의 기근, 때 아닌(非時) 풍우, 뒤늦은(過時) 풍우, 일월의 박식(薄蝕), 성수(星宿)의 변과이다. (심지관경)

이렇게 들었다

재난예방 "지혜로운 이 미리 독 썩는다"

■보살은 마땅히 온갖 중생을 위해 큰 불이 날 때와 큰 물에 떠내려 갈 때와 폭풍이 불 때, 배나 강물·바다·나팔의 환난에도 마땅히 이 경계를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법명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코배 등을 가져다 보니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 때에 신들의 보호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흉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부터 역란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독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서 지혜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 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 (중일아함경)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지는 일이 없듯이 사람이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도 안 된다. (법구경)

독자 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들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십시오.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전화: (02)722-4162·팩스: (02)737-0688·천리안: aum·홈페이지: 34713

방송 종교종립 지켜야

SBS-TV에서 2일 오후1시에 재방송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보다가 분노를 느끼는 대목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말 등 친진 난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때 한 아이가 영무새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했다. 순진한 어린이들이 보았을 때에는 기도는 무조건 예수님께만 하는 것이 다 라는 인식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기독교 방송도 아닌 SBS-TV가 특정 종교를 선호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앞에 평등해야 할 언론매체의 공정성을 의문한 처사다. 고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장혜원(강원도 춘천시 호지동)

열린마당

연등축제, 서울문화축제로

고건 서울시장의 지난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밝힌 연등축제의 서울시 문화행사 추진을 거둔 확인했다. 고 시장은 7월 31일 방송된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등축제를 서울의 특색있는 문화축제로 다듬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불교행사가

그 지역의 문화행사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성스러운 종교의식의 관광상품화를 우려하면서 불교문화에 갖는 신앙의 정수를 보여줘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연등축제의 서울시 문화축제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서울 중로에서 봉행된 연등축제. 수만개의 촛불을 밝혀 IMF 경제난 극복을 기원했다.

"불교행사에서 시민 한마당으로"

지현스님(조계종중추위 기획단장)
연등축제는 근대들어서의 제등행진의 종 2행사에서 국민축제로 전환하면서 통일신앙과 고대시대 연등회의 역사성을 잇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동안이 토대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98년을 기점으로 천년까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착하는 시기이다. 이에 98년 연등축제는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로써 연등축제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봉은사의 지원으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전통종교 연구·재현 사업의 성과를 사찰단위로 보급 희망함으로써 전통종교는 물론 불자들 개개인의 창작동으로의 주변확대를 위한 산업화로 사라지고 있는 전통화를 되살리는 한편 그 다양함의 축적적 요소를 더하여 다수의 장엄등을 중심으로 풍부한 등불의 문화의 장으로서 연등축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제 불교만의 연등축제가 아니다. 서울의 유일한 지역축제로 2 위상을 달리 하며, 나아가 1600년 민족불교에 상응하는 국민적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매년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음도 밝혀둔다. 연등축제가 국민축제로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불자를 자신에게 있다.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찬탄하여 기쁘게 맞이하고, 빈자일등의 교훈을 되살려 자신의 참된 삶을 만들어 밝혀두고 이웃과 함께 하는 환희심에 넘치는 연등축제를 모든 불자들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한국불교 1600년은 그대로 문화"

이상기(한국관광공사 상품개발과장)
오늘날 관광분야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1천6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불교문화는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례로 불교전통의 식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도 관광상품화되어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케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관광공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최근 정부가 문화관광코스를 지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불교의 연등축제를 서울시 문화축제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문화행사가 시문화축제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불거리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광상품으로의 적극적인 활용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문화 행사인 연등축제가 서울시 문화축제로 지정되고 또 이를 계기로 각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도 자치단체의 문화행사로 적극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보여주기식 관광상품화 우려"

도관스님(불교문화교육연구소 자료실장)
역사적으로 연등회나 관등놀이와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큰 나라잔치이며 놀이였는가는 여러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나이든 노모가 아들에 업혀 남산에 올라 정월과 이월에 벌어지는 서울잔치의 가까호 관광을 밝힌 것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연등축제를 서울시에서 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고충과 그동안 행해지고 있는 불교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반영하는 논의를 통해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만백성들이 광명을 받았던 민중적 축제를 현대에 어떻게 발전, 계승할 것인가가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관에서의 축제가 국민들과는 내용이 겹도는 형태를 많이 보아온 우리는 축제의 내용이 외국인들이 보고 즐기는 보여주기식 관광상품으로 되는 모양보다는 실제로 서울시민이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면서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즐기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의식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도자기문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은 운도계를 만들기 시작하여 항공기엔진을 도자기로 만드는 성과를 내놓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현대화된 축제를 일본의 한 마을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 좋은 전통의 살아있는 계승의 문제를 재삼 고민하면서 연등축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형식적 지원보다는 실질적 시민축제와 살아있는 전통계승의 문화모델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은빛모래, 반짝이는 밤자욱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찾아오는 바다.

돌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은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침묵속으로 다가오는 보릿밭 물결 파랑새 부처씨 버린

파도를 손목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갈래

파도속을 헤쳐가며 잔잔하게 노을빛으로 내려앉는다.

원장 이영숙(본명)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접 확실한 미혼남녀 현형,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어린이 포교 지도교사 전문 양성 교육기관

동원불교교사대학

< 1기 수강생 모집 >

21C 한국 불교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부족한 어린이 지도교사의 양상으로 어린이 지도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법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동원불교교사대학을 개학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날기 2542년 8월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 회장 정 여 합장

입/학/안/내

1. 입학자격 :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으면 모든 분
2. 교육기간 : 1년(1998년 9월~1999년 6월)
3. 교육일시 : 매주 화, 수 저녁 7시 ~ 9시
4. 교육장소 : 양정 청소년회관
5. 구비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2매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사무국 보현선원 ☎ 051)853-5486
7. 입학식 : 1998년 9월 1일
8. 수업료 : 월 20,000원
9. 특전 :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 포교사 시험에 합격 후 포교사 자격증과 함께 어린이 지도교사 자격증 수여함.
 - 어린이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신분증 보장받게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사이즈 39 x 39cm
색상 빨강, 검정
가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